자동차

Car

세계 자동차업계, 가자! 중국으로

'2006 베이징 국제 모터쇼' 1,500업체 참가
현대 SUV '베라크루즈' 등 신차만 550여대
612마력 세계적인 명차 '마이바흐62S' 첫 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2006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최신 차종을 잇따라 선보이며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이번 모터쇼에서는 현대·기아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 토요타, GM 등 전세계 20여개국 1천5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인 차량 550여대와 첨단 자동차 부품 등을 소개한다.

이처럼 자동차업계가 중국 공략에 나선 것은 중국 자동차시장이 매년 급성장을 거듭하며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연간 5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판매를 기록한데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베라크루즈'로 기선제압**=현대차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모터쇼에서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346평의 부스를 확보하고 총 13개 모델을 전시하고 있다.

럭셔리 SUV인 '베라크루즈'를 세계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을 비롯해 '에쿠스 리무진', '싼타페' 등 중국에 완성차 형태로 수출하는 6개 차종과 '쏘나타' 등 베이징 현대가 생산하는 6개 모델, 콘셉트카 'HED-3(아네즈)' 등을 전시중이다.

또 베이징 현대가 생산하는 해치백 스타일의 '아반떼XD 5도어'의 신차 발표회도 갖는다. '아반떼XD'(현지명 '엘란트라')는 2003년 12월 판매 이후 매년 10만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인기모델로, 지난해 17만6천589대를 판매한데 이어 올해도 10월까지 13만여대가 판매됐다.

특히 국내 최초 럭셔리유틸리티차량(LUV· Luxury Utility Vehicle)을 표방한 '베라크루즈'의 경우 전시장을 찾은 관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현대차는 '베라크루즈' 출시로 최근 확보한 중국 SUV시장내 1위 자리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산차업계 중국시장 공략 본격화**=기아차는 196평 규모의 부스에 '오피러스', '쏘렌토' 외에 '천리마'(현대차 '베르나'의 변형모델), '쎄라토', '카니발' 등 10개 차종을 전시중이다. 기아차는 특히 '프라이드'의 중국형 모델인 '리오'를 선보이고 중국 소형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GM대우는 지난 9월 파리모터쇼에서 선보였던 'WTCC 울트라'를 시보레 엠블렘으로 출품했다. 'WTCC 울트라'는 전세계 GM 디자이너들이 참가한 콘셉트카로 GM대우 디자인센터에 근무하는 한국 디자이너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GM대우는 첫 SUV '윈스톰'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카이런', '렉스턴 Ⅱ', '액티언', '뉴체어맨', '로디우스' 등 5개 차종을 160평 규모의 전시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쌍용차는 중국 디젤 SU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액티언'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세단형 크로스오버 SUV '카이런'의 공식 론칭행사를 갖는다.

◇**세계 유명 자동차회사도 가세**=이번 모터쇼에서는 외국의 유명 자동차회사들의 중국시장 선점 전략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고급 SUV인 'GL-Class'를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또 세계적 명차로 꼽히는 '마이바흐'의 스페셜 버전인 '마이바흐62S'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마이바흐 62S'는 12기통 엔진, 612마력의 강력한 파워를 갖추고 있다.

아우디는 중국시장을 겨냥해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된 'A6L'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존의 'A6'보다 휠 베이스가 10㎝가량 길어져 뒷좌석 탑승자의 편의를 고려했다는 게 아우디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상의 주행안정성을 보장하는 풀타임 4륜구동 시스템 '콰트로(quattro)', 중국어가 지원되는 통합장치 사양도 준비했다. 또 초고성능 스포츠카 'R8'과 함께 지난 4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한 '뉴 아우디 TT쿠페'도 내놓았다.

토요타는 중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형 '캠리'와 신형 '코롤라' 등을 출품해 중국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밖에 GM을 비롯한 포드, 폭스바겐, BMW 등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주력 차종으로 삼고 있는 최신형 모델을 잇따라 공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

美소비자 선정 '안전한 밴'

현대 '앙 트라지' 기아 '세도나'

현대자동차의 미국 수출용 미니밴 '앙트라지'와 기아자동차의 '그랜드카니발'(수출명 '세도나'·사진)이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미니밴으로 선정됐다.

24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앙트라지와 그랜드카니발이 최

근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선정한 '올해의 안전한 승용차' 가운데 미니밴 부문의 가장 안전한 차로 뽑혔다.

두 차량은 최근 미국의 소비자 전문지인 컨슈머 리포트가 실시한 자동차 소비자 품질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자동차 최초로 '최우수 추천 차종'으로 선정되는 등 미국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시동 모터소리 약하면 배터리 기능 이상
미끄럼 방지위해 타이어 공기압 낮춰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차량의 '겨울나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젤이나 LPG차량은 시동을 걸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월동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디젤엔진은 충분히 예열한 후 시동을 걸어야 하고, LPG엔진은 시동 후 예열이 필요하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들이 늘어난다. 배터리 기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배터리는 시동모터 소리가 약하면 배터리 단자의 오염이나 저항 정도를 점검 받아야 한다. 보통 배터리는 2~3년 정도를 기준으로 교환해 준다.

타이어를 점검하는 것은 겨울철 안전운전의 필수적인 요소다.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공기압을 평소보다 낮춰서 주행하는 운전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 타이어 내부에 열을 축적시킴으로써 타이어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 50% 이상 닳아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겨울도로 주행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타이어를 교환해야 한다.

기온이 떨어지면 점화플러그의 불꽃이 약해질 수 있다. 점화플러그는 2만~4만㎞정도에 점검한다. 전극이 오염돼 불꽃이 약하면 고압 케이블과 함께 교환해야 한다.

히터를 켜고 15분 이상이 지나도 찬바람이 나온다면 정비소에 가서 써머스타트(정온기)를 점검한다. 이때 뒷유리 열선도 함께 점검해두면 좋다.

겨울이라도 에어컨을 2주에 한번 정도 켜주면 냉매회로에 윤활제가 묻어 기계가 부식되는 것을 막고 냉매 유출이 차단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냉각장치는 반드시 농도점검을 한다. 부동액 비율이 낮아 냉각수가 얼어붙으면 엔진과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냉각수의 높이, 상태, 농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